

실속형 스마트팜 도입, 농업소득 3천만원 견인

전북농협, 농업 인구 고령화 문제 해결 위한 혁신적인 대안 제시

전북농협(본부장 이정환)이 2022년부터 선제적으로 '전북농협 실속형 스마트팜' 모델을 발굴하고 보급에 나서며,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농업 인구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전북농협 실속형 스마트팜은 농협 공선회 조직의 단동 및 연동 시설하우스에 ICT 기술을 접목하여 구축한 스마트팜 모델로 온·습도, 이산화탄소(CO2), 병·난방, 창문개폐 등을 자동화하고 PC나 스마트폰에서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하여, 실시간 생육환경을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를 위해 전북농협은 2022년 전문업체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보다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해왔다.



전북농협 실속형 스마트팜은 농협 공선회 조직의 단동 및 연동 시설하우스에 ICT 기술을 접목하여 스마트폰에서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하여, 실시간 생육환경을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전북농협은 2024년까지 농가당 2천만원 규모로 16개 농가에 보급했으며, 올해도 추가로 3개 농가를 선정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농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앙화와 참여농협이 설치 비용의 70%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스마트팜 농가의 생육환경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역본부 내에 소규모 관제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이정환 본부장은 "스마트팜이 농업인의 삶을 변화시키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현하는 핵심 요소가 되어야 한다"며, "농가들이 부담 없이 도입할 수 있는 실속형 스마트팜을 지속적으로 확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농업의 디지털 전환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농협은 단순한 시설 투자에서 벗어나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와 지속가능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하며 향후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확대해 보다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사단법인 전북IT산업협회가 공동주최한 '2025년 전북IT산업 기술교류회'가 지난 28일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신산업육복합 지식산업센터에서 열렸다.

ICT/SW 융합산업 발전 등 협력

전주정보산업진흥원 · 전북IT산업협회, MOU 체결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사단법인 전북IT산업협회가 공동주최한 '2025년 전북IT산업 기술교류회'가 지난 28일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신산업육복합 지식산업센터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전북지역 IT기업 간 기술 공유와 협력을 모색하고 최신 IT기술 동향을 소개하는 자리로, 업무협약과 기술교류 세미나로 나뉘어 진행됐다.

먼저 양 기관은 기술교류회에 앞서 도내 ICT/SW 융합산업 발전 및 사회·경제 혁신을 지향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적으로 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를 바탕으로 지역 산업혁신 방안 대응을 위한 상호

협력적인 기술교류와 공동 프로젝트를 다방면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이어 도내 IT 업계 종사자와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AI 등 신기술을 주제로 한 세미나가 진행됐다.

이번 세미나는 IT산업의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업계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해 지역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IT산업협회 회원사 솔루션 소개 △인공지능의 핵심인 LLM(거대언어모델) 구축의 핵심 △강력한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사례발표 등이 이어졌다.

/김옥기 기자

전개공, 순창 전원마을을 조성

기본계획수립 착수보고회

전북개발공사는 27일 순창 전원마을을 조성사업 기본계획수립 및 마을정비 구역지정 용역의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에는 전원마을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관계자 및 용역을 맡은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의 기본방향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순창 전원마을을 조성사업은 순창읍과 구립면 일원에 단독주택 110호를 조성하여 아름다운 자연과 어우러진 삶을 원하는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용역을 통해 전북개발공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마을정비구역 지정을 목표로 순창군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할 계획이다.

전북개발공사 관계자는 "그동안 지역 발전에서 소외된 군지역과의 균형 발전 및 인구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순창군의 지역 특성을 살린 전원마을을 조성으로 귀농·귀촌인의 주거 안정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전북환경청, 기업 화학안전공동체 간담회 개최

민·관 소통으로 화학물질 사고 예방

환경부 소속 전북지방환경청(청장 송호석)은 27일 전북환경청 대강당에서 2025년 대·중소기업 화학안전공동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화학안전공동체는 지리적으로 인접한 기업들이 화학사고 예방 및 공동대응을 위해 운영중이며, 화학안전관리역량이 우수한 주관사(1개사)와 소속사(2~4개사)를 하나의 공동체로 구성하고 있다.

전북지역에서는 2013년 최초 7개 공동체, 28개 기업으로 시작한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현재는 전주·익산·군산·정읍·완주 산업단지에 총 17개 공동체, 66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효율적인 화학안전 관리를 위해 환경청의 '25년도 중점업무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화학물질 관리 법령 이행에 따른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기업과 소통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올해 환경청에서는 △개인보호장구 착용 정착 캠페인 전개 △사고대응

민·관 합동훈련 △맞춤형 기술지원 △찾아가는 화학안전 교육 등을 추진하여 기업의 화학물질 관리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작년 도내에서 발생한 화학사고 사례의 원인과 대응방법, 유사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등을 안내하여 화학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였으며, 올해 연말까지 찾아가는 화학안전교육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기업의 생산 현장에 전달할 계획이다.

송호석 전북지방환경청장은 "화학사고 예방은 현장 작업자의 안전의식과 관리자의 관심이 중요하다"며 "기업과 소통·협력을 강화하고 현장 적용성이 높은 다양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옥기 기자

새만금개발공사-전주대, 새만금 개발·지역 인재양성 업무협약

새만금개발공사(사장 나경균, 이하 공사)는 27일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 이하 대학)와 새만금의 성공적인 개발과 지역의 우수 인재 양성 등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주대학교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은 새만금개발공사 나경균 사장과 전주대학교 박진배 총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본 협약은 양 기관의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산학협력을 위한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상



생 발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새만금 사업 및 공동 발전을 위한 협력 △새만금 사업을 위한 인재 양성 및 교육 훈련 추진

△대학의 학술 및 정보 교류와 전문인력 자원 협조 △지역 상생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방안 도출 및 실행 등이 다.

나경균 사장은 "전북의 미래가 될 새만금 발전을 위해 관련 연구와 우수인력 양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공사와 대학이 새만금의 미래성장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여 새만금 개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농진청, 농촌진흥기관 주무과장 첫 업무 회의

농촌진흥청(청장 김재환)은 27일 오후, 본청에서 전국 9개 도 농업기술원과 156개 시군농업기술센터의 주무과장들이 참석하는 업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지난달 전국 시군농업기술센터 소장 업무협의회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지방 농촌진흥기관 관계관 참석 협의회이다. 지방농촌진흥기관 주무과장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력을 강화해 농촌 지도사업과 농업 연구·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마련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농촌지도사업 중 장기 혁신 방안 핵심과제 발굴 및 추진 방향 △2026년 예산 확보 대응 방향 △지방농촌지도조직의 현장 어려움 대응 및 지방농촌지도 공무원 역량 배양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 활성화 등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농업연구개발 혁신 추진 방안, 농촌진흥청-도 농업기술원-시군농업



기술센터-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연계한 현장 밀착형 사업과제 발굴에 관한 의견도 나왔다.

농촌진흥청 서효원 차장은 "시군농업기술센터는 중앙 기관 또는 민간 협력을 확대해 지역 농업 현안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맞춤형 기술지원을 제공하는 최일선 기관이다"라며 "새로운 혁신 과제를 발굴·선정해 지속 가능한 농업과 활력 넘치는 농촌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